

계 열 문 항 1

<가>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파수꾼** 네, 촌장님.**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파수꾼** 도끼는 왜 들고 와요?**촌장** 망루를 부순다구 그런단다.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파수꾼**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파수꾼** 촌장님도 아시는군요?**촌장** 난 알고 있지.**파수꾼**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닷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파수꾼**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는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촌장** 애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닷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 이강백, <파수꾼>에서

<나>

투쟁하는 집단은 갈등의 지속이 곧 자기 집단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부단히 갈등을 유발해야 한다. 집단 내부의 단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갈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집단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들이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거나 감지하도록 환기하는 조건뿐이다. 이때 위협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집단이 위협의 존재를 느끼기만 하면 된다.

개인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적인 긴장 해소 요구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집단이 적을 찾는 목적은 구성원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집단의 구조를 존속시키려는 데 있다. 심지어 투쟁하는 집단을 생기게 한 초기의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도, 그 집단들은 처음 그들이 집단을 만들던 시점의 모습 그대로여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투쟁적으로 활동한다.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스스로 와해해버리게 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조직은 어차피 해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직은 새로운 목적을 찾아 내게 된다.

만약 적이 없어지게 되면 위태롭게 될 집단의 존속을 위해서, 집단은 새로운 적을 찾게 된다. 외부에서

적을 찾아내거나 적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단순히 집단 구조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의 저하나 내부 불화로 집단 응집력이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외부와의 참여할 갈등은 구성원들의 경계 태세를 소생시키고 이탈 경향을 약화시켜서 집단 내 반대자에 대한 일치된 대응 행동을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다>

<표 1>과 <표 2>는 최근 000 국가에서 ‘집단의 성향 차이에 따라 진짜/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은 응답자들에게 서로 다른 6개의 뉴스를 차례대로 제시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지 거짓이라고 믿는지에 대해 대답한 결과를 집단별로 분류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각 뉴스별로 ‘완전히 거짓’(1점), ‘대체로 거짓’(2점), ‘보통’(3점), ‘대체로 사실’(4점), ‘완전히 사실’(5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답했다. A집단과 B집단은 상반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표 1> 진짜/가짜 뉴스에 대한 집단별 사실 여부 인식

	1. A집단에 유리한 '진짜 뉴스'	2. A집단에 유리한 '가짜 뉴스'	3. B집단에 유리한 '진짜 뉴스'	4. B집단에 유리한 '가짜 뉴스'	5. 집단별 유불리와 무관한 '진짜 뉴스'	6. 집단별 유불리와 무관한 '가짜 뉴스'
전체	3.38	3.22	2.85	2.81	3.34	2.21
A집단	3.74	3.75	2.39	2.08	3.36	2.17
B집단	3.08	2.80	3.28	3.65	3.56	2.22
여타 집단 (A와 B에 속하지 않는 집단)	3.30	3.12	2.92	2.82	3.21	2.20

<표 2>는 여러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응답 결과를 집단별로 분류한 것이다. 감정온도는 질문받은 대상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온도로 답변한 것으로서, 0도에 가까울수록 대상에 대해 차갑게(부정적으로) 느끼고 100도에 가까울수록 따뜻하게(긍정적으로) 느낀다.

<표 2> 대상에 따른 집단별 감정온도

대상	전체	A집단	B집단	여타 집단 (A와 B에 속하지 않는 집단)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	49.4	42.3	50.6	51.6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에 대해	60.0	61.2	61.1	59.1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해	54.4	53.8	55.9	54.4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54.1	56.5	54.4	53.6

1-1. <가>의 ‘촌장’의 주장과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1-2. <표 1>에 나타난 A와 B 두 집단의 공통된 특성을 서술하고, <표 1>과 <표 2> 그리고 <나>의 논지를 활용해서 A집단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당나라 때의 유명한 화백 대승(戴嵩)은 면밀한 관찰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소를 잘 그려서 이름을 떨쳤다. 그 그림들의 가치는 돈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승이 그린 투우도(鬪牛圖) 한 폭이 전해져 내려오다 송나라 재상인 마지절(馬知節)이 이 그림을 소장하게 되었다. 마지절은 그림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금의 그림을 수집하여 감상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가 소장한 투우도는 유명한 명인이 오랜 세월의 관찰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소싸움 모습을 그린 작품인지라 그는 이 그림을 극진히 아꼈다. 하여 그림에 별레나 좀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단으로 덮개를 만들고 옥으로 족자봉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햇빛과 바람이 좋은 날을 택해 자주 밖에 내다 말리며 수시로 일광욕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청 앞에 그림을 걸어놓고 바람을 쐬어주고 있는데 소작료를 내려고 찾아온 한 농부가 먼 발치에서 그 그림을 보고는 피식 웃었다.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가 그림을 보고 웃다니…’ 마지절은 화가 나서 농부를 불러 세웠다.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웃었느냐?”

농부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놈아! 이 그림은 당나라 때의 대가인 대승의 그림이다. 그런데 감히 네까짓 게 그림에 대해서 무얼 안다고 함부로 비웃는 것이냐?”

마지절이 불같이 화를 내자 농부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 같은 무식한 농부가 어찌 그림에 대해 알겠습니까? 하오나 저는 소를 많이 키워보고 소가 서로 싸우는 장면도 많이 보았기에 소의 성질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요. 소는 싸울 때 머리를 맞대고 힘을 뿔에 모으고 서로 공격하지요. 하지만 꼬리는 바짝 당겨 두 다리 사이의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센 청년이라도 소꼬리를 끄집어낼 수 없지요. 현대 이 그림 속의 소는 꼬리를 뒤로 뺀 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로 웃음이…”

농부의 말에 놀란 마지절은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대청에 걸어놓고 일광욕을 시키던 대승의 그림을 찢어 버리며 탄식했다.

“대승은 이름난 화가이지만 소에 대해서는 너보다 더 무식했구나. 이런 엉터리 그림에 속아 평생 찢지 못할 부끄러운 헛일을 하고 말았도다. 그간 애지중지했던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나>

소 그림 가운데 가장 격렬한 동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싸우는 소다. 호암갤러리 전시에 출품되었던 <싸우는 소>는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일정한 바탕색을 가한 후에 격렬한 동세에 따라 터치로 윤곽과 근육의 조직 및 꼬리의 모습을 예리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

굵은 터치이거나 날카로운 선조에 의하거나 소의 격렬한 동세를 이렇게 단숨에 파악해 들어간다는 것은 소의 생태, 소의 해부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쉬고 있는 소와 싸우기 직전이나 싸우는 도중의 소가 갖는 각각 다른 표정, 그리고 움직임에 따른 근육 조직 및 꼬리 등의 변화는 소의 생태와 해부학적 연구가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적인 상태의 것이 아닌 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는 더욱 까다롭기 마련이다.

이중섭이 몇 번의 터치에 의해 소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구현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소에 대한 관찰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동경 시대부터 소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소에 대한 관찰과 스케치는 이미 데뷔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해방 후 원산 시대에도 여전히 소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었으며 이때의 관찰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들에 나가 소를 관찰하는데 어찌나 소를 유심히 보는지 소 임자가 소도둑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에피소드는 유명하다.

원산 시대 이중섭 주위 사람들은 그가 소만 관찰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부둣가에 나가 생선과 생선을 파는 여인네들도 열심히 관찰하고 스케치했다고 전하며 집에서 기르는 닭도 열심히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이중섭의 작품은 하나같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현장 스케치를 통한 관찰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격렬하게 얽혀 싸우는 소의 동작을 재빠른 붓놀림으로 거의 한숨에 내달릴 것 같이 표현해내고 있음도 이중섭의 소에 대한 오랜 관찰의 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체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중섭의 <싸우는 소>(호암갤러리 소장)



현실의 소싸움 사진

<다>

언더도그마(Underdogma)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량하며 정직하고, 힘이 강한 사람은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언더도그마는 약자와 강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힘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약자 편에 서면서 그 약자에게 신뢰와 정직함을 부여하고, 강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비난을 보내는 것이다. 랍비인 슈물리 보태악은 언더도그마의 개념을 “둘의 견해가 충돌할 때, 강자보다 약자의 말에 쉽게 귀 기울이며 믿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오버도그(Overdog)와 언더도그(Underdog), 즉 강자와 약자가 대립할 때, 강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우선적인 동조와 지지를 보인다. 이런 증거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성서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미국 독립운동가,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강 소련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 하키팀, 영화 <록키> 시리즈의 록키 발보아, 자메이카의 밥슬레이팀 등의 사례에서 보듯 많은 이들은 오버도그를 외면하고 언더도그에 호응한다.

이런 현상은 현대의 실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대형마트 체인이 동네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일치단결해서 대형마트 경영자를 비난하고 동네에 있는 언더도그 구멍가게 편에 서는 경향이 짙다. 회사 사장과 직원 간 마찰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으레 직원의 말에 더 솔깃해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치가 충돌할 때 힘이 강한 오버도그를 반사적으로 비난하고 힘이 약한 언더도그의 말에 솔깃하며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2-1. <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이는 마지막의 미덕(美德)을 쓰고, <나>의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그의 행위를 비판하시오. (300자±30자)

2-2.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과 그 구성 요소들이 <가>의 상황에 적용될 가능성을 타진한 후, 그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오. (600자±60자)